공정무역

공정무역이 무엇이길래

공정무역은 무역당사자간의 상호존중 속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무역을 말합니다

공정무역이란 힘과 자본의 논리가 우선 적용되던 기존 무역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무역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국제무역은 덤핑이나 생산·수출보조금, 수입 규제, 수출 제재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보호무역 장치들은 약소국이 동등한 조건에서 국제무역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즉, 가난한 나라들이 무역을 통해 공정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갖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무역은 특히 소외된 제3세계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무역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합니다.

국제공정무역연합의 10원칙

국제공정무역연합(IFAT: International Fair Trade Association)은 다음의 10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공정무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 기존 무역제도에서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은 생산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여 빈곤을 완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모색합니다.
2. 무역 거래자들과의 공정하고 상호존중하는 관계를 수립하고 투명한 경영관리에 영향을 주고자 합니다.
3. 시장진출방법을 찾아주고 경영기법을 전수하는 등 생산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생산자의 생산여건이나 생산품 및 조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정직하게 광고하고 품질 좋은 생산품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5. 생산자들이 공정한 대가를 받고 남녀차별 없이 동일한 조건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공정한 가격 지불을 보장합니다.
6. 여성들도 그들이 생산에 기여한 만큼 적절한 임금과 보상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7. 생산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8. 어린이들이 노동에 참여하더라도 건강과 안전, 교육과 같은 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유엔 아동권리에 대한 협약을 지키도록 합니다.
9. 친환경적이고 책임있는 생산방식을 권장합니다.
10. 영세한 생산자들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여 상호존중과 신뢰가 지속되는 장기적인 무역거래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공정무역의 사례

'착한 초콜릿'

우리나라 초콜릿 시장은 2007년 3,500억원 규모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 대부분은 초콜릿이 어디에서 어떤 과정으로 생산되는지 그 이면에 있는 아동노동과 환경 파괴의 현장은 모르고 있습니다.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이 농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02년 국제적도농업기구(IITA)의 조사에 의하면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카메룬의 카카오 농장에서는 약 284,000명의 9살에서 12살 사이의 어린이들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필요한 보호 장비도 없이 농약과 살충제를 뿌리고 마체테라는 긴 칼을 가지고 카카오 열매를 따는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400개 정도의 카카오 포드를 따야 1파운드의 초콜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어린이들 66%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64%는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

카카오 농장은 수확한 카카오의 제값을 받지 못하고 빈곤의 악순환에 놓여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경제는 카카오 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를 비롯하여 서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카카오가 세계 카카오 생산량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ITA에 의하면 카카오를 재배하는 소규모 농부들은 가구당 연 평균 수입이 $30~$110 정도이며, 이 돈으로는 먹고 살기도 어려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카카오 농장으로 내 보낸다고 합니다.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어 카카오 농사에 매달리고 있는 농부들은 카카오 농장의 확대에 따라 카카오가 과잉 생산되면서 값이 폭락하기도 하고 중간 상인에게 헐값에 팔아 넘겨야 하기 때문에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빚을 지고 이런 빚이 쌓여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을 통해 카카오 생산자와 그들의 아이들이 모두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이 이루어진다면 카카오 생산자는 수시로 변하는 국제시세에 영향 받지 않고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최저 가격을 보장해 줄 경우, 생산자는 안정적인 소득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꾸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국제공정무역상표기구(FLO)로부터 인증 받은 공정무역 카카오는 가나, 카메룬,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및 벨리즈 등 8개의 국가에서 대략 42,000명의 농부가 협동조합을 만들어 생산하는 카카오입니다. FLO인증을 받은 생산자 조합이나 제품은 생산자에게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노동착취를 하지 않고 환경 친화적으로 생산하였음을 FLO로부터 보증받는 것입니다.

공정무역제품인증마크

1997년에는 국제공정무역상표기구(Fairtrade Labelling Organizations International: FLO)가 21개국의 참여로 발족되었습니다. FLO는 공정무역 제품의 표준과 규격을 설정하고, 생산자들을 지원하는 등의 일을 하며, 2002년부터는 공정무역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FLO는 80여개국에서 632개의 인증 생산자 조직과 파트너 관계에 있으며, 전세계 4,692개의 수출입상, 가공업자에게 인증 라벨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라벨은 제3세계 가난한 생산자들에게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가격을 보장하고, 사회적 초과이익을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데에 쓰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유럽에는 이미 7만여 개의 아울렛, 3천여 개의 월드샵, 3만3천여 개의 슈퍼마켓 등 수많은 상점에서 공정무역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제품 인증 마크>

공정무역의 효과

공정무역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4년 공정무역 인증 상품은 단지 3가지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3천여 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판매량으로 보아도 2004년 8억 유로에서 2007년에는 23억8천 유로로 소비자의 의식전환과 윤리적 구매가 늘어나면서 공정무역 제품의 판매가 한 해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정무역의 규모는 여전히 전세계 교역의 0.0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공정무역이라는 작은 실천으로도 세계의 많은 극빈자들이 도움받게 됩니다

영국의 민간구호단체인 옥스팜(Oxfam)에 따르면 현재의 무역에서 존재하는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여 개발도상국이 얻는 이익의 비율을 1%만 올리게 돼도 세계 1억 2천8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계 13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 1달러도 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갑니다. 빈곤과 환경문제는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서도 절대 빈곤은 해소되어야 합니다. 자유무역 시장에서 공정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할수록 지구상의 빈곤을 감소시키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도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공정무역을 위한 일상에서의 실천

공정무역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합시다

영국에서는 많은 슈퍼와 공정무역가게, 유기농 식품점, 커피숍 등에서 공정무역 인증커피와 홍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영국처럼 공정무역인증제품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YMCA, 두레생협연합, 아름다운가게, 여성환경연대 등 몇몇 단체와 사업자들이 공정무역인증제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답니다.

*관련 사이트 : http://www.ymcakorea.org/ , http://www.dure.coop/ ,
http://www.beautifulstore.org/ , http://www.ecofem.or.kr/ ,
http://www.ecofairtrade.co.kr , http://www.fairtradekorea.com

공정무역라벨의 제품을 요구합시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도 공정무역인증제품이 보편화되는 데에 일등공신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슈퍼와 커피숍, 레스토랑에서 점원에게 직접 말하거나 가게에 놓여진 '고객의 소리'같은 앙케이트 용지를 이용하여 공정무역 라벨의 커피와 홍차, 초콜릿, 바나나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거에요. 소용없는 일이라고요? 스타벅스는 '착한 소비'를 주도하는 소비자들에 의해 2000년부터 에티오피아 등에서 커피원두를 시장보다 2배 가량 높은 가격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도 2005년에 제3세계 국가의 아동들을 착취해 운동화를 만들어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도 하였답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공정무역마을로 만듭시다.

영국에서는 360개 이상의 마을이 공정무역마을이 되었으며, 200개 이상의 마을이 인증을 받기 위해 지역 내에서 적극적으로 공정무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00곳 이상의 교회, 60곳 이상의 대학도 공정무역교회, 대학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공정무역마을, 대학, 종교단체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대학과 직장에서 공정무역커피를 마십시다.

미국에서는 300개 이상의 대학구내식당과 매점에서 공정무역커피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학생이 중심이 되서 서명운동과 시음 캠페인을 실시하여 학교 측과 업계에 요구하고 실현시켰습니다. 유럽에서는 많은 기업과 단체가 직장에서 마시는 커피, 홍차를 공정무역라벨제품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이렇게 변한다면 커피 한잔의 여유도 가질 수 있고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데에 도움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